



“누구라도 와서 쉬을 얻고, 모든 도민들의 삶을  
포용할 수 있는 따뜻하고 복된 공간, 역사와 문화, 예술이 살아 숨 쉬는  
굿모닝하우스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경기도지사

“관사의 ‘권위’와 ‘격’을 간직한 도민들의 소통과 참여의 장,  
관사의 새로운 정의, 굿모닝하우스에서 시작됩니다.”

건축가 김찬중

## 이용안내

게스트하우스 객실 수 : 총 5개 (1객실 당 2인 숙박 기준)

이용가격 : 1박 5만원

예약 신청 : 전화(031-248-2903), 또는

홈페이지(www.goodmorning-house.com)

카페

운영 시간 : 09시~21시(매주 월요일 휴무)

※결혼식이 있는 토요일의 경우 카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역사전시관

운영 시간 : 09시~18시(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 가격 : 무료

전시 주제

· 제 1 전시실(1층) : 경기도, 천 년의 역사와문화를 이야기하다

· 제 2 전시실(2층) : 경기도, 세계로 나아가다

· 제 3 전시실 및 집무실(2층) : 경기도, 도민과 소통하다

문화예술

운영 프로그램 (4월~6월, 9월~11월)

프로그램

· 색이 있는 문화공연 : 매주 수요일 11시 , 19시 30분

· 별별 문화클럽 : 매주 금요일 19시 30분

· 테마가 있는 토요 콘서트 : 17시 / 5월 28일, 6월 11일, 9월 24일, 10월 15일

문의 메일 : arts@goodmorning-house.com

문의 전화 : 경기도청 031-8008-4682 / 경기문화재단 031-231-7233

예약 신청 : 홈페이지(www.goodmorning-house.com)

작은 결혼식

신청 안내

· 신청조건 : 경기도 거주 도민 (예비부부 또는 양가 부모 중)

· 하객수 : 100명 이내로 제한

· 예식장소 : 굿모닝하우스 야외정원

· 시설사용 : 야외정원, 대연회장, 야외주차장, 신부대기실 및 폐백실

· 물품지원 : 예식물품, 음향장비 등 21종

· 신청 방법 : 홈페이지(www.goodmorning-house.com)

· 문의 메일 : wedding@goodmorning-house.com

※ 2016년 신청 마감, 2017년 상반기 대상자 2016년 7월 공개모집 예정

(1644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168(화서동, 굿모닝하우스)

**T** 굿모닝하우스 (031)248-2903 | 굿모닝카페 (031)248-2904

**H** www.goodmorning-house.com **E** info@goodmorning-house.com



굿모닝 하우스  
GOOD MORNING HOUSE



도지사의 공간이 모두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공관이자 도지사의 사적인 영역으로

인식되어 온 경기도지사 관사가

문을 활짝 열고 모든 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굿모닝!’





개방과 나눔의 철학 아래 공간, 문화, 역사를 함께 공유하다

관사는 오랫동안 권위의 상징이자, 베일에 싸인 미지의 공간이었습니다. 굿모닝하우스는 그 빗장을 열고 개방과 나눔, 소통과 참여의 상징이 되고자 합니다. 개방의 대상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도민 모두와 경기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까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유산을 아우르는 구심점이 되다

유구한 경기도의 역사와 수원 화성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포용하는 넓은 광장이자 문화의 구심점이 되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수원 화성의 돌레길, 성안이 한눈에 들어오는 팔달산 꼭대기의 서장대 등 유서 깊은 유적지 속에 자리 잡은 굿모닝하우스에게는 어찌면 당연한 사명일지도 모릅니다.

경기도의 꿈이 도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다

굿모닝하우스는 지역사회와 도민들을 향한 경기도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열린 공간에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만들며, 다같이 성장하는 것이 굿모닝하우스가 상상하는 미래입니다. 평범한 일상에 활력을 불어 넣고, 문화예술의 지평을 넓혀가는 우리 모두의 창조의 원천이 되겠습니다.

## 역사 History



경기도지사 관사는 1967년 경기도청과 함께 건립된 후 지난 47년간 22명의 도지사가 머물렀던 공간입니다. 도정을 위한 경기도 최고 리더들의 열정과 고뇌를 고스란히 기억하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 장소입니다.

외형적으로는 1960년대 모더니즘 건축의 의장적 특징을 표현하고 있어 근대건축의 백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준공 이후 5번의 증·개축을 통해 도지사의 생활공간에서 다양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도정의 중심지로 변모해온 경기도지사 관사가 이제 굿모닝하우스로 새로운 진화를 시작합니다.

경기도지사 관사의 역사

- 1967 경기도지사 관사 건립 (11대 박태원 도지사)
- 1984 관사 연회장 증축을 통해 관사가 단순한 생활공간에서 도정의 일부를 수용하는 공적 공간으로 기능 확장 (20대 이해구 도지사)
- 2014 경기도지사 관사 개방 공표
- 2015 관사 리모델링 및 카페동 신축
- 2015 '굿모닝하우스' 명칭 제정
- 2016 숙박, 연회, 전시, 커뮤니티 기능을 겸비한 신개념 복합문화시설, 굿모닝하우스 개관

## 공간 Space



게스트하우스

관사의 일부를 외부 방문객들이 체류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형 숙박시설로 재정비하였습니다. 2층 건물의 관사동에는 모두 5개의 객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계단과 복도를 사이에 두고 리드미컬하게 배치돼 있어 작은 건물 안에서도 서로 독립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역사 전시관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해 나가고자 하는 굿모닝하우스의 정신을 담은 공간입니다. 도지사의 집무실이 함께 자리 잡고 있으며, 게스트하우스와 함께 관사동에 위치합니다. 전시관에는 경기도의 역사를 세 개의 테마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굿모닝카페

굿모닝하우스를 도민에 개방하면서 신축한 건물에 카페가 들어섭니다. 전문 바리스타들이 뽑아내는 맛있는 커피는 물론이고, 계절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채소와 과일로 살아있는 신선한 메뉴들을 제공합니다.



잔디광장

굿모닝하우스의 잔디광장은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한편의 그림 같은 풍경을 선사합니다. 굿모닝하우스를 하나로 아우르는 중심이 되며, 각각의 공간과 물리적으로 또 기능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습니다.